

퀄러-바움가르트너의 성서 히브리어 및 아람어 사전 제3판 소개

이환진*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루드비히 퀄러(Ludwig Koehler)와 발터 바움가르트너(Walter Baumgartner)가 1967년부터 펴내기 시작하여 1995년에 완간한 성서 히브리어 및 아람어 사전을 소개하는 글이다. 엄밀하게는 이 두 학자가 독일어로 펴낸 것을 영어로 번역한 성서 히브리어 사전 제3판을 소개하는 글이다.¹⁾ 이 책의 제목과 저자들 그리고 번역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HALOT). Subsequently revised Walter Baumgartner and Johann Jakob Stamm; with assistance from Benedikt Hartmann, Ze'ev Ben-Hayyim, Eduard Yechezkel Kutscher, Philippe Reymond. trans. M. E. J. Richardson in collaboration with G. J. Jongeling, Vos L. J. de Regt. Leiden: E.J. Brill. 1994-2000.

이 사전의 제1판은 1953년에 퀄러가 독일어와 영어로 펴냈다. 1958년에는 제2판이 나왔는데, 이 제2판은 퀄러가 바움가르트너에게 부탁하여 펴낸 부록편(Supplement)을 합쳐 나온 두 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부록편은 제1판의 첨가와 교정을 모아 놓은 책이다.²⁾ 제2판 역시 히브리어를 독일어와 영어로 설명한 사전이다. 그런데 퀄러는 이 제2판을 보지 못하고 1956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³⁾ 이어서 나온 이 사전의 제3판은 바움가르트너의 주

*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약학.

1)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con zum Alten Testament*. 5 band. 3 Aufl. von Walter Baumgartner. Leiden: E. J. Brill, 1967-1995.

2) *Supplementum ad 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 Leiden: E. J. Brill, 1958.

3)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도 하에 개정작업을 한 책이다. 그렇지만 위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학자들의 도움으로 완성되었다. 특별히 벤 하임(Ben-Hayyim)이나 쿠처(Kutscher) 같은 유대인 학자들이 이 개정 작업에 함께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 사전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고 모두 5권으로 나왔는데, 앞의 4권은 성서 히브리어 부분이며 마지막 제5권은 성서 아람어 부분이다. 독일어로 나온 각 권의 출판 연도는 다음과 같다.

- 제1권(א - III תבט) 1967년
- 제2권(II תבט - טבט) 1974년
- 제3권(טבט - תאג) 1983년
- 제4권(תאג - תשע) 1990년
- 제5권(아람어) 1995년

출판된 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전은 약 30여 년에 걸쳐 완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성서 히브리어에 대한 저자들의 열정을 알아볼 수 있는 장구한 세월이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획하여 나온 이 사전을 리차드슨(M. E. J. Richardson)이 다른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 번역하여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네덜란드의 브릴(E. J. Brill) 출판사에서 내놓았다.

최근에 워싱턴 대학교 셈어학과의 마이클 오코너 교수가 20세기에 나온 성서 히브리어 사전들을 소개하고 평가한 좋은 글을 썼다.⁴⁾ 특별히 다음 항목인 20세기 성서 히브리어 사전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에 마이클 오코너의 글을 많이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2. 20세기에 나온 성서 히브리어 사전들

퀼러-바움가르트너의 히브리어 사전을 소개하기에 앞서 20세기에 나온 성서 히브리어 사전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기로 한다. 20세기에 나온 사전들을 출판된 연대별로 나열하면 이렇다.

20세기 초반 - BDB(1907),⁵⁾ 게제니우스-불(1915)⁶⁾

the Old Testament. vol. I. א-ק. trans. M. E. J. Richardson. Leiden: E. J. Brill, 1994, vii.

4) M. O'Connor. "Semitic Lexicography: European Dictionaries of Biblical Hebrew in the Twentieth Century." *Israel Oriental Studies* 20 (2002): 173-212.

20세기 중반 - KBL 제1판(1953), 조렐(1954)⁷⁾

20세기 후반 - 마드리드(Madrid),⁸⁾ 셰필드(Sheffield),⁹⁾ KBL 제3판

20세기 초반에 나온 BDB와 『게제니우스-불 사전』은 이 사전들의 서문에 서도 밝혔듯이 빌헬름 게제니우스(Wilhelm Gesenius)의 사전을 번역하고 개정하여 펴낸 사전으로, 19세기 유럽 개신교회의 학문적 토양에서 나온 것이다. 각각 영어권과 독일어권을 대표하는 사전들이다. 곧 독일의 성서 히브리어 문법학자이며 사전학자인 게제니우스의 학문 전통에 서있는 사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유럽의 학문적 토양에서 나온 사전이지만 BDB의 저자 가운데 프란시스 브라운(Francis Brown)과 찰스 브릭스(Charles Augustus Briggs)는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학원의 교수였다. 이런 면에서 유럽과 미국의 영어권 개신교 학자들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에 나온 두 종류의 사전은 독일과 스위스에서 나온 사전들이다. 『퀼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1판』(KBL 1)은 독일어와 영어로, 그리고 『조렐 사전』은 라틴어로 출판되었다. 『퀼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1판』(KBL 1)은 스위스의 개신교 학자들이 내놓은 사전이고, 『조렐 사전』은 로마 성서학 연구소의 예수회 소속 가톨릭 학자 프란치스코 조렐(Franciscus Zorell)이 펴낸 사전이다. 조렐은 히브리어 부분을 쓰고 난 뒤 세상을 떠났으며, 뒤에 폴 켐코브스키(Pole Ludovicus Semkowski)가 아랍어 부분을 써서 함께 출판하였다.

20세기 후반에 나온 것 가운데 『마드리드 사전』은 예수회 신부이며 로마 성서연구소(Pontifical Biblical Institute)의 교수였던 루이스 알론소 쉐켈(Luis Alonso Schökel)의 주도 하에 작업하여 스페인어로 1994년에 내놓은 사전이다. 『셰필드 사전』은 1993년부터 처음 나오기 시작하여 계속 나오고 있는 사전으로, 영국 셰필드 대학교의 데이빗 클라인스(David J. A. Clines) 교수가 주도하여 펴내고 있는 사전이다. 이 사전의 특징은 쿵란 문헌까지

5) Francis Brown,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Based on the Lexicon of William Gesenius as Translated by Edward Robinson. Oxford, 1907.

6) Wilhelm Gesenius und Franz Buhl.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16th ed. Leipzig, 1915.

7) Franciscus Zorell. *Lexicon hebraicum Veteris Testamenti*. Roma, 1954.

8) Luis Alonso Schökel, et al. *Diccionario bíblico Hebreo-español*. Madrid, 1994.

9) David J. A. Clines, John Elwolde et al.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5 Vols. Sheffield, 1993-2001.

포함하여 기원전 1천년대의 히브리어를 다루고 있는 점이다. 또한 이 사전 작업에 참여한 학자들이 영국의 개신교인뿐만 아니라 가톨릭교인 그리고 유대인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20세기 초중반에 나온 히브리어 사전들은 모두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후반에 나온 사전들은 여러 권으로 나뉘어 있다. 곧 사전들이 다루고 있는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세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한 학자가 쓰지 않고 여러 학자가 팀을 이루어 백과사전 식으로 세분하여 작업하여야 하는 분야가 사전학 분야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는 성서 히브리어 사전 편찬이 신앙 전통과 나라의 구분 없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퀼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3판』(KBL 3)은 주로 스위스 학자들의 작품이지만 앞서 밝힌 대로 벤-하임이나 쿠처 같은 유대인 학자들이 제1판부터 함께 작업에 참여했다. 곧 그 특징은 신앙 전통과 상관 없이 함께 작업했다는 것과 계속해서 개정 작업하여 내놓은 작품이라는 점이다. 이는 성서를 번역할 때 신앙 전통을 떠나 계속해서 함께 개정 작업하여 내놓는 전통과도 견줄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3. 『퀼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3판』(KBL 3)의 특징

우선 루드비히 퀼러가 『퀼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1판』(KBL 1)을 펴낼 때 그의 서문에서 밝힌 몇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퀼러는 히브리어 사전을 펴내는 데 다음의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다고 말한다.¹⁰⁾ 곧 문맥(context)과 근친 언어(cognate languages)이다. 우선 어떤 낱말과 표현의 뜻을 알아내는 데에는 본문의 문맥에 잘 어울리는 뜻을 찾는 일이다. 둘째로는 아카드어, 우가릿어, 아람어, 이디오피아어, 아랍어 같은 여러 근친 언어의 문맥이나 표현이 같은 경우 모호한 히브리어 낱말이나 표현의 뜻을 알아내는 데 유용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조점은 19세기의 히브리어 연구가 어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원 연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고 퀼러는 밝힌다. 곧 문맥을 중시하는 연구와 근친 언어 연구를 통한 낱말이나 표현의 역사적 변천을 추적하는 작업을 병행하는 요즘 히브리어 연구의 경향을 반영하였다고 말한다. 이렇

10) 『퀼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3판』(KBL 3) 제1권(영어역)의 lxix-lxx 쪽에 실려 있는 퀼러의 제1판 서문.

게 문맥을 중시하여 연구하고 또 근친 언어를 통한 어원 연구를 병행하는 분야를 의미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전은 현대 학자들의 이러한 연구를 참조하여 편집했다고 켈러는 밝히고 있다.

제2판은 앞서 밝힌 대로 제1판을 교정하고 약간 고친 판이다. 고친 내용은 미쉬나 히브리어와 유대인 아람어, 우가릿어와 다른 새김글 그리고 쿵란 문헌에 나오는 낱말들을 표제어에 첨가한 점이다.¹¹⁾ 따라서 제2판은 엄밀하게는 제1판과 별로 다르지 않은 교정본(校訂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제3판은 제1판의 개정본(改訂本)이라고 말해야 할 듯하다.¹²⁾ 제1판을 주도적으로 작업한 학자는 켈러이고 제3판을 주도적으로 작업한 학자는 바움가르트너이다. 그리고 눈에 금방 띄는 것은 독일어와 영어로 되어 있는 제1판이나 제2판과 달리 제3판은 독일어로만 나온 점이다.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책은 이 성서 히브리어-독일어 사전을 영어로 옮긴 것이다. 제1판의 경우 낱말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설명할 수 없음”(unexplained)이라고 표기한 경우가 눈에 많이 띄는데, 제3판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이러한 경우를 많이 줄였다. 또한 제1판과는 달리 추측하여 본문을 변경(conjectural emendations)하는 일을 될 수 있는 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히브리어 비평본인 BHK와 BHS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나온 BHK의 비평 장치에는 본문 변경 제안이 많이 나오는 반면, BHS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

바움가르트너가 제3판 서문에서 밝힌 대로 이 사전의 특징은 켈러가 앞서 밝힌 제1판의 원칙과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발견된 새로운 문헌들을 첨가하여 히브리어 낱말과 그 뜻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새로운 히브리어 문헌들이란 일차적으로는 여러 성서 본문 전통들 곧 바빌론 본문 전통과 사마리아 본문 전통, 집회서(벤시라)의 여러 본문 전통 그리고 쿵란 성서 본문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성서 이외의 문헌으로는 우선적으로 성서시대 이후에 유대인이 쓴 히브리어와 아람어 문헌들(미쉬나, 탈무드 등)을 말한다. 또한 히브리어와 아람어 이외의 문헌들로는 우가릿어, 페니키아어와 푸닉어, 아카드어, 이디오피아어 문헌들을 가리킨다.

11) 『켈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3판』(KBL 3) 제1권(영어역)의 lxxxviii쪽에 실려 있는 바움가르트너의 제2판 서문.

12) 『켈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3판』(KBL 3) 제1권(영어역)의 lxxxix쪽에 실려 있는 바움가르트너의 제3판 서문.

이렇게 근래에 학자들이 각 분야에서 연구한 성과를 그대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바움가르트너는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그가 도움을 받은 각 언어 분야의 학자들은 아랍어 분야의 베네딕트 하트만(Benedikt Hartmann), 미쉬나 히브리어와 유대인 아랍어 분야의 쿠처(E. Y. Kutscher), 이집트어 분야의 지그문트 모렌츠(Sigmund Morenz), 아카드어 분야의 볼프람 폰 쏘덴(Wolfram von Soden), 옛 남부 아랍어 분야의 마리아 회프너(Maria Höfner), 인도-이란어 분야의 만프레드 마이어호퍼(Manfred Mayrhofer)이다. 이렇게 각 언어분야의 학자들을 일일이 거명한 것은 그만큼 이 사전이 비교언어학적으로도 각 언어 전문가들의 자문을 철저히 구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리라. 이는 BDB와 많은 점에서 비교되는 점이다.

4. KBL 3과 BDB의 비교

『퀼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3판』(KBL 3)을 BDB와 비교하려는 이유는 BDB가 100여년 전인 1907년에 나온 사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애용하는 사전이기 때문이다. BDB는 기존에 나온 사전 가운데에서도 가장 철저하게 성서의 많은 구절을 담고 있는 사전이다. 하지만 이렇게 애용도가 높은 BDB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은 표제어가 말뿌리[語根]를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히브리어를 접하는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19세기의 어원 중심 연구를 반영하는 사전이기 때문에 주로 아랍어를 많이 인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랍어가 셈어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아랍어에서 어원을 찾는 것이 19세기의 학문적 조류였다. 하지만 적어도 기원후 6-7세기에나 가서야 문헌이 기록된 후대의 아랍어 문헌으로 성서 히브리어의 어원을 찾는다는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BDB에는 우가릿어가 인용되지 않았다. 아직 우가릿어 문헌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시대에 나온 사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점이다. 그런데 아카드어의 경우에는 부정확한 뜻을 달아놓은 곳이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큰 결함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몇 낱말을 예로 뽑아 우리말로 옮겨 어떻게 『퀼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3판』(KBL 3)이 편집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면이 제한되어 있기에 우선은 항목이 짧은 “에드(אֵד)”의 경우와 “에제르(עֵצֶר)”의 경우를 우리말로 옮겨본다.

אֵד, 어미가 붙은 형태 אֵדָא: 유대인 아랍어^b אֵדָא 바다-거품(Perles OLZ 21:67);

창 2.6 칠십인역 $\pi\lambda\eta$, 아퀼라역 $\epsilon\pi\beta\lambda\upsilon\sigma\mu\omicron\varsigma$ 솟구치다, 욥 36.27 칠십인역 $\nu\epsilon\phi\epsilon\lambda\eta$, 36.30 כִּי־יִשְׁרַח 의 추측, 칠십인역과 테오도시온역 참조; 수메르어 a-dé-a (깊음에서 올라오는 홍수) > 아카드어 edū (큰물) > 차용어 (Speiser BASOR 140:9ff; AHw. 187); Kaiser 101ff: 창 2.6 땅 밑 신선한 물이 흐르는 시내, 땅 밑 물(?), 욥 36.27과 36.30(추측) 하늘 시내 (:: 안개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음, 아랍어 'ijād). +

흔히 “안개”로 옮겨온 에드(אֵד)라는 낱말 설명을 모두 옮겨놓은 것이다. 이 낱말은 성서에서 딱 두 번만 나오는 말로서 실은 그 뜻을 잘 알 수 없는 말이다. 그런데 지난 50여년 동안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땅 밑 신선한 물이 흐르는 시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필자는 이 낱말을 “땅 밑에서 용솟음치는 생명수”로 설명하고 싶다.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땅과 물의 신 엔키(Enki)를 그 신화적 배경으로 지니고 있는 낱말이기 때문이다.¹³⁾ 아무튼 지금까지 진행된 셈어 비교문헌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밝혀낸 낱말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고대역본들이 어떻게 이 낱말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잘 밝혀놓은 사전이 『켈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3판』(KBL 3)이다. 이에 비해서 BDB는 이 낱말을 단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אֵד 남성명사. 안개 (어원이 불분명함; 아랍어 'ad = 강하다; 보호하는 것, 그늘; 다른 견해로는 DI^w 125) 창 2.6; אֵד 욥 36.27.

BDB에는 이 낱말의 말뿌리를 אֵד 로 상정하여 이 표제어 밑에 작은 글자로 배치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낱말의 어원 설명은 『켈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3판』(KBL 3)의 제안이 더 설득력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BDB는 이 낱말의 어원이 불분명하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아랍어를 근거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켈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3판』(KBL 3)의 설명이 훨씬 방대하고 더 치밀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흔히 “도움”이라고 옮기는 에제르(אֵזֶר)라는 낱말을 『켈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3판』(KBL 3)은 움직씨 아자르(אֵזֶר)의 어원을 아자르 I과 아자르 II의 둘로 나누었다. 『켈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3판』(KBL 3)이 BDB와 다른 점은 아자르 II이다. 이 부분을 우선 옮겨보기로 한다.

II אֵזֶר , 우가릿어 $\acute{g}zrm$ 젊은 남자, 용사, 영웅 (Gordon Textbook §19: 1956;

13) 에스겔 47장과 요엘 2장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신화적 모티프가 등장한다.

Aistleitner 2138; Dietrich-Loretz WdO 3 (1964-6): 189ff; 이디오피아어 ? (Ullendorff JSS 7 (1962):347 참조) ‘azara/ta'azra (Dillmann 1003: ‘공격을 개시하다’인지 ‘홀어지다, 쇠도하다’인지 그 뜻이 확실치 않음; 아랍어 ? (Aistleitner 2138) gazura 많다, 엄청나다; 형용사 gazīr 많은, 풍부한 (Wehr-Cowman 672b).

칼형: 분사 오제르(עזר) 영웅, 용사 대상 12.1 (이런 뜻으로 쓰인 듯함) 시 89.20의 에제르(עזר)를 오제르(עזר)로 읽으라. 옛날에는 네제르(נזר)를 에제르(עזר)로 읽을 것을 제안함. 그러나 더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는 I עזר 1을 보라: 겔 12.14, 30.8, 32.21. 대상 12.1, 욥 9.13: Patrick D. Miller UF 2 (1970):159-175와 Driver Myths² 155a, Rainey Festschrift to Gordon (1973):139-142, Fisher Parallels 2의 74쪽 주 3, THAT 2:257에 더 많은 구절이 나옴. 이들 문헌에는 II עזר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문헌도 언급됨; - 지금까지 발견된 우가릿어 문헌에서는 정형(定型) 동사형(완료태, 미완료태)이 발견되지 않은 까닭에 히브리어에서 이 낱말의 동사형이 나온다는 주장도 불확실함. 밀러(UF 2 (1979): 특히 174쪽)가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동사로 읽을 수 있는 구절로 다음의 예를 듦. 대상 5.20, 대하 26.15, 단 11.34, 시 28.7의 경우는 I עזר의 니팔형으로, 시 46.6, 대상 12.18, 22, 대하 20.23, 26.7, 28.23의 경우는 I עזר의 히필형으로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함. 대하 32.3, 8과 시 118.13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음.

그러니까 『퀸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3판』(KBL 3)은 이 낱말을 설명하면서 우가릿어 문헌에 많은 비중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옛날 학자들이 아랍어에 근거하여 이 낱말의 본디 뜻을 찾아내려고 했던 노력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우가릿 학계의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 낱말이 전투용어인 점을 밝히려 한 것이다. 이 점은 에제르라는 명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점과도 연결된다. 일반명사 에제르 I과 고유명사 에제르 II의 설명은 바로 뒤에서 볼 BDB의 설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세 번째 경우인 에제르 III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번 읽어보자.

III *עזר: ? II עזר: עזרך 신 33.26, עזרנו 시 33.20, עזרם 시 115.9, 10, 11. 힘, 능력 (Miller UF 2 (1970):167f.), עזרך 신 33.26 폭풍 같은 너의 성급함 (Gray Legacy² 264).

이렇게 동사 아자르와 명사 에제르를 새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가릿어 문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옛날 학자들의 논의를 전혀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 함께 실으면서 독자들이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 필자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제르도 이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에제르 크네그도(עזר כנעני)라는 표현을 “그를 마주 서 있는 힘”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BDB는 어떻게 에제르를 설명하는지

옮겨보기로 하자. 우선 에제르라는 낱말의 말뿌리가 “돕다”라는 뜻의 아자르(I עזר)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낱말 아래에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에제르를 보통명사(I עזר)와 고유명사(II עזר)로 나누어 설명한다. 여기서는 보통명사의 경우만을 옮겨보기로 한다.

† I. עזר 남성명사. 시 121.1 도움, 구원; - עזר 절대형 창 2.18 +, 어미와 함께 עזרי 출 18.4, עזרה 겔 12.14 등; - 1. 도움, 구원 사 30.5 (작말 הועיל, 반대말 בשת, הרפה, 단 11.34; 야훼(יהוה)에게서 오는 (도움) 시 20.3, 121.1, 2, 124.8; 시 89.20의 עזר는 נזר로 읽으라. Dyserinck, Grätz, Kautsch (עז Bickell, Cheyne), Hupfeld 참조; מגן עזריך 신 33.29 (= יהוה). 2. 구체적인 뜻 = 돕는 이 (I עזרה 2 참조) בעזר (베이트 에센치에, ב I 7 b, 게제니우스 문법[Ges]^{§119hi}를 보라) 창 2.18, 20 (J) + 호 13.9 (עזר)로 읽으라. Cheyne, Wellhausen, Guthe^{Kau}, Nowack); 집합명사 (ב 없이) 겔 12.14 (달리 읽기; Cornill עזריו); 특히 야훼(יהוה)의 (도움) עזר מצריו 신 33.7 (시문), עזר + מגן 시 33.20 115.9, 10, 11, + מפלט 70.6; בעזר (위를 보라) 출 18.4 (E), 신 33.26 (시문), 시 146.4. עזר אבן(9)를 보라.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BDB는 이 항목에서 성서에 나오는 모든 구절을 인용하고 또 학자들의 제안을 모두 인용하면서 이 낱말의 뜻이 “도움, 구원”이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이 설명은 앞서 인용한 『켈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3판』(KBL 3)보다 훨씬 단순한 설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DB는 당시에 흥미했던 문서 가설을 받아들여 이 낱말이 어떤 문서에 나오는지도 괄호 속에 집어넣어 안내한다. 그렇지만 『켈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3판』(KBL 3)은 이 문서 가설을 배제하여 넣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람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나쁜, 악한”이라는 뜻을 지닌 전형적인 아람어 브에쉬(באש) 항목을 옮겨보기로 한다.

באש: 히브리어와 같음. 기본적인 뜻은 ‘고약한 냄새가 나다, 코를 쏘다.’ 공용 아람어, Nerab ii: 9 하펠형 (Donner-R. *Inschriften* 226; 또한 Vogt *Lexicon* 25b를 보라); 유대인 아람어 (Jean-H. *Dictionnaire* 32; Hofnijzer-Jongeling *Dictionary* 142 b’s₁ 항목); 유대인 아람어, DSS (Dalman *Wb.* 47a; Beyer *Arm. Texte* 528); 크리스찬 팔레스틴 아람어 (Schulthess *Lex.* 22b); 시리아어 (Brockelmann *Lexicon* 56b); 만대익어 BİŞ (Drower-Macuch *Dictionary* 63a).

페알: 완료태 באש 나쁘다. 사람을 가리킬 때 על과 함께 쓰임. 누구를 불쾌하게 하다 (히브리어 표현 רעע אל/על, I רעע 2 b를 보라) 단 6.15 (:: טאב על 누구를 흐뭇하게 하다, 6.24); “고통을 당하다”로 읽는 NRSV와 REB 참조.

비교문헌학적인 면에서 『퀸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3판』(KBL 3)은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별히 같은 아람어 문헌이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이 낱말이 같은 뜻으로 쓰였는지를 표기해 놓았다. 위에서 번역하지 않았지만 이 사전은 비쉬(בִּישׁ) 항목에서 더 상세한 문헌을 늘어놓아 이 낱말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에는 BDB를 우리말로 옮겨 보기로 하자.

† בִּישׁ 동사. 약하다, 나쁘다 (타르굼도 같은 뜻을 지님; 시리아어 beš; 옛 아람어 בִּישׁ Lidzbarski²³³ SAC²⁷ Cooke¹⁹¹; 성서 히브리어 참조); - פעל. 완료태 3인칭 남성단수. 명령형 אַשׁ עֲלוּהִי בִּישׁ 단 6.15 그에게 약했다(불쾌했다) (성서 히브리어[רעע] 1 참조).

† [בִּישׁ Kautzsch § 11, 3^(b)] 형용사. 나쁜 (이집트 아람어도 같은 뜻을 지님. Cooke^{75,2}; 타르굼 בִּישׁ, 시리아어 beš); - 여성단수 강조형 וּבְאִישׁוֹא 스 4.12 (반역하는) 나쁜 (도시) (אִישׁוֹא로 읽을 수 없음. Baerⁿ).

위의 번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BDB는 동사를 그 말뿌리로 상정하여 “나쁜”이라는 뜻을 지닌 베이쉬(בִּישׁ)라는 형용사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낱말이 이집트 아람어와 타르굼 아람어, 시리아어에서도 같은 뜻을 지닌다고 말한다. 이 설명에 비해 『퀸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3판』(KBL 3)은 쿵란 문헌의 용례까지 포함하여 이 낱말의 비교문헌학적 자료를 덧붙이고 있다.

5. 나가는 말

『퀸러-바움가르트너 사전 제3판』(KBL 3)은 지금까지 애용해 온 BDB보다도 더 철저한 비교문헌학적 연구를 반영한 사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우가릿어 문헌 연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모호한 히브리어의 뜻을 문맥에 맞게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편집한 책이다. 이는 분명히 100여년 전에 나온 BDB보다는 진일보한 모습이다. 히브리 성서를 연구하는 이들이 이 사전에 반영된 20세기의 학문적 결실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Abstract>

A Review of Koehler & Baumgartner's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Hwan-Jin Yi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third edition of the *Hebrew and Aramaic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edited by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KBL 3). This dictionary was published in German in 5 volumes (1967-1995), and was translated into English by M.E.J. Richardson (1994-2000).

KBL 3 reflects the biblical Hebrew scholarship of the last century: context and etymology. The dictionary tries to treat each context of the words and expressions in the Bible. Furthermore, it offers readers wider usages of the cognate languages. This becomes clear when we compare KBL 3 to BDB. KBL 3 suggests that **אֵי** (Gen 2.4) would be a Sumerian loan word meaning “the subterranean stream of fresh water, ground water” (1:11). The word was taken as “mist” or something like that in BDB. KBL 3 also suggests that **אֵזַב** can mean “strength, might” (2:812) in Psalm 115.9-11. BDB takes this word only as “help, succor” or a similar meaning. In fact, BDB does not succeed in dealing with the cognate languages properly. One of the merits of KBL 3 is that it includes the Ugaritic cognates, which BDB does not have.

KBL 3 indeed shows the best and the most thorough scholarly achievement of the last century in the field of Hebrew semantics and comparative philological studies. It is certain that this dictionary will give us the best chance to enjoy biblical scholarly flavor.